

국민의힘 “5·18 정신 이어가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새해 소망을 적어 보이고 있다. /나눔기자mjna@kwangju.co.kr

지도부, 설 앞두고 광주 방문...지역 숙원사업 지원 약속 “광주는 첨단산업 창업도시, 전남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둔 19일 불모지인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을 잡는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각종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중 정책위 의장, 송연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그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방명록에도 “화해와 통합 5·18 정신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겠다”라고 썼다. 정 위원장 등은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각종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인구 감소를 언급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이다”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성일중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5월 단체 공

법화를 통해 5·18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섰고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호남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남대 스마트병원 신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포함시켰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역현안 해결 성과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의를 마친 뒤 윤병태 나주시장 등과 함께 전남 나주 목사고을시장을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청취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시장에서 배와 옥수수, 고구마, 반대기 등을 사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지방을 찾은 것은 지난 10월 13일 대구·경북(TK)과 같은 달 28일 충남 천안, 지난달 부산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비명계 “이재명 출석 잘한 결정”

조웅천·이원욱 의원 “당당한 모습”...일부 의원 자발적 동행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하자 당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호평이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웅천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굉장히 잘한 결정으로, 그게 당당한 모습”이라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도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 분열 우려가 커

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데 미안한 감정을 수차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홀로 검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당장의 내분 가능성도 수그러드는 듯한 양상이다. 또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완벽한 단일대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이 심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는 특히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할 당시

40여 명의 동료 의원이 동행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변호인과 함께 사실상 ‘홀출단식’으로 출석하는 데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검찰에 탄압받는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재차 의원들에게 동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대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소수라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자발적으로 동행 가능성은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서 ‘세일즈 외교’

글로벌 CEO와 오찬 행사...IBM 등 글로벌기업에 투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참석 첫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시내의 호텔에서 진행된 ‘글로벌 CEO와의 오찬’으로 다보스포럼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CEO들에게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및 한국 투자를 거듭 당부했다. 오전에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외국기업 인사로는 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오브아메리카(BoA)·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히타치·셀·에어리퀴드·토탈·네슬레

·TPG·리포 등 15개 업체 CEO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CEO들에게 최근의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에 기반해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민간 주도·시장 중심 경제정책 방향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력 보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정미 “광주에서 총선 승리 발걸음 시작”

정의당 대표 명절 앞 광주 방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0일 광주를 방문, 민심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지역 출신인 강은미(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한 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 등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대변하는 외교부에 대항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살피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 “정의당은 이곳 광주에서부터 혁신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발걸음을 시작하겠다”면서 “광주 정신을 따라 민생, 민주주의, 노동의 정의당 재창당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호남, 광주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 승리의 기치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혁신을 통한 재창당 등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국힘 전대 결선투표 1위 자신”

대구 서문시장·칠성시장 방문...“나경원 집단린치 더는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전당대회 결선투표에서 1위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결선투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결선투표 때 과연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그런 점을 두고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방식에 따라 세 후보(김기현·나경원·안철수)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제가 1위를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집단린치로 표현할만한 그런 일들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되고 누가



뽐히든 간에 우리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이렇게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후보간 연대가 능력에 대해서 “수도권 중심성으로 대응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며 “그런 뜻에서 저나 윤상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오께 서문시장을 찾은 안 의원은 상인들과 간담회에 이어 칠성시장과 관문시장을 차례로 돌아본 뒤 서울로 향한다. 안 의원은 대구 방문 이유에 대해 “첫째는 우리당을 지켜주시는 당원분들 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